

“마르첼리노의 소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이○○ (M/23)
- 종교: 개신교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고 함)
- 진단명: 하행결장암
- 입원 경과: 17년 10월 혈변 및 체중 저하 증세 보였고, 본원 내원 및 대장암 3기 진단받음. 본원에서 대장암 수술 시행했으며, 이후 간전이, 복막전이로 수차례 수술 및 항암 받았으나 말기 암으로 더 이상 적극적 치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호스피스 권유 받고 9월 5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실함.

<호스피스 등록 시 상태>

- 활동 상태: ECOG 2, PPS 80%
- 의식 상태: 명료
- 영양 상태: 죽 3수저, 간식, 음료수 소량씩 섭취 중임.
- 배뇨: 자연배뇨 7~8회/일, 300ml/회
- 배변: 설사 1~2회/일, 200ml/회 (소장 분절 절제술로 수술 후 설사 계속하는 상태임)
- 활력징후: 혈압, 맥박수, 호흡수 정상. 간헐적 발열 있음.
- 삽관: chemoport, PCN, foley catheter
- 신체 사정(주호소): 통증, 수면장애, 불안, 우울

진료 부분

<병력>

2017.11.13 내원 5개월 전부터 몸무게 약 30kg 가까이 감소하였고, 복통 및 변비 악화 점차 악화되어 타병원 경유 CT 상 하행결장에 덩어리 소견 보여 본원 내원. 하행결장암 진단 후 수술 시행함.

2017.12.11~18.05.06 항암치료 7차 시행함.

2019.01.15 간 전이로 추가 수술 시행함.

2019.02.26~08.13 항암치료 12차 시행함.

2020.02.19 복막 전이로 추가 수술 시행함.

2020.03.16~09.08, 2020.12.14~2022.02.14 12차 항암치료 시행함.

2023.08.28 소장 폐색으로 소장 분절 절제술 시

행함.

2023.09.05 다발성 전이, 급성 신부전 악화, 구토, 통증 증가로 호스피스 병동 이실함.

<주 증상에 따른 진료 과정>

#1. 전신, 복부 통증

(사정)

- 말기 암으로 전신, 복부 지속적인 통증 호소함.
- 돌발성 통증 시 아프다며 소리치고 화내는 모습 관찰되며 돌발성 통증 빈도 증가

(치료 계획 및 증제)

- NRS 6~7점으로 찢어지는 듯한 호소함.
- 돌발성 통증으로 하루에 6~7회 Morphine

20mg iv 투약함.

- Continuous Morphine 180mg start 하여 현재 20mg 증량하여 수액에 혼합하여 투약 유지

(평가)

- 통증이 NRS 2~3점으로 감소함.
- 진통제 증량 후 진통제 요구 횟수 1~2회/일 감소함.
- 통증 조절 후 평온한 표정으로 병동 거동 및 침상 안정 중임.

#2. 오심/구토

(사정)

- 복강 전이로 인한 소장 폐색으로 오심 지속적 으로 호소하며, 구토 1~2회/일, 150g/회 관찰됨.
- 오심, 구토로 식이 섭취량 제한적임.

(치료 계획 및 중재)

- 호스피스 이실 전 소장 분절 절제술 시행한 상태임.

- 항구토제 ondansetron 8mg bid 투약함.

(반응)

- 항구토제 투여 후 오심/구토 횟수가 감소하였음.
- 증상 완화되면서 식이 섭취량이 증가하는 효과 있었음..

#3. 출혈

(사정)

- 유치도뇨관 및 경피적 신루에서 혈뇨 관찰됨.
- 혈뇨로 인한 복통 동반되는 모습임.

(치료 계획 및 중재)

- 유치도뇨관 세척 3L/일 시행함.
- 지혈제 continuous tranexamic acid 1000mg 투약 시작함.

(반응)

- 세척 및 약제 투여 후 혈뇨색 없어짐.
- 유치도뇨관 제거 후에도 혈액 응고 덩어리 관찰되지 않음.

간호 부분

<간호학적 진단>

#1. 악성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온몸이 다 아파요 그냥. 진통제 맞아도 효과가 금방 떨어져요.”
- “그냥 아플 때면 여기 있는 걸 다 부수고 싶어요.”
- 주로 복부, 전신 통증 호소함.
- 돌발 통증 시 찢어지는 듯한 통증 호소하며, 통증 점수: NRS 6~7점. 통증
- 심해지면 화내는 모습 관찰됨.

(계획 및 중재)

- 통증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 통증 도구와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통증교육 실시함.

- 통증의 양상에 따라 Continuous morphine 200mg으로 증량, prn) morphine 주사 25mg으로 증량함.

-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투약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함.

(평가)

- “바로 진통제를 놔주니 이전보다 아픈 건 덜한 것 같아요. 짜증을 덜 내요.” - 어머니.
- 통증 시 쿨벨 누르며 적극적으로 표현함.
- 통증이 NRS 2~3점으로 감소함.

#2. 우울

(사정)

- “친구가 전화하면 호스피스가 뭐 하는데 인지 일일이 설명해야 해요.” 짜증 내며 말함.

- “sns에 다른 애들은 여행가고 좋은 것들만 올라오는데 전 이렇게 주사나 달고 있어요.”
- 말기 암 진단 이후 본인의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아쉬움, 걱정,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변화 관찰됨.
- (계획 및 중재)**
- 우울 정도, 원인, 악화 및 완화 요인을 사정함.
- 우울한 감정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 수용하는 태도로 환자의 말을 경청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 항우울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효과 및 부작용

- 을 지속적으로 평가함.
- 가족과 지인들 함께 있어 주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격려함.
- 봉사자 목욕, 세발, 요법 활동 등의 원내 지지 체계를 통해 기분 전환을 도모함.
- 수녀님의 기도 방문에 위안 느끼는 상태였으며, 종교적 지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평가)**
- 지속적인 방문 및 관심, 이야기 함께 나눔을 통해 심리적 우울감 호전됨.
- 음악요법 연계하여 환자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 편안함 느낀다고 표현함.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미혼, 1남 1녀 중 차남
- 고퇴, 무직, 개신교
- 외향적인 성격
- 유년기 부모 갈등과 반복된 별거 경험하며 성장하였고, 중학교 2학년(2014년) 부모 이혼으로 모친 슬하 생활함.
- 고등학교 2학년(2017년) 암 진단받았으며, 갑작스러운 발병에 충격과 두려운 마음 들면서도 부모의 관심을 받기는 등 복잡한 정서 가짐.
- 2018년 여자 친구와 교제 시작하였고, 입원 시 주 돌봄 제공자로 간병하거나 모친 부재 시 자택에서 동거하는 등 가족처럼 생활함. 하지만 2023년 4월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며 슬프고 속상한 마음에 음주와 흡연 반복하여 전신 상태 악화됨.

<가족력>

아버지(53세)

- 자영업
- 이혼 후 연락 단절 및 양육비 미지급 하였으

- 나 환자 암 진단 후 병원비 지원하는 등 치료 관련 비용 원조함.
- 재혼하여 슬하 1녀(5세) 두었음.

어머니(52세)

- 자영업, 개신교
- 주의사결정자, 주 돌봄 제공자
- 이혼 후 양육권 가졌으나 생업으로 자택에 부재한 경우 많았음.
- 환자 암 진단 후 우울과 절망감 컸으나 ‘엄마인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다.’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노력함.
- 2022년 척추협착증 수술 받았으며 최근 들어 별안간 열감 느끼는 등 갱년기 증상 나타남.
- 2023년 7월까지 자영업체 운영하였고 간병 위해 근로활동 중단하였으나 환자 사후 재시작할 계획.
- 여동생과 친밀한 관계로 자주 교류하며 간병 관련 심리적·금전적 도움 받음.

누나(31세)

- 미혼, 직장인

- 동복형제
- 환자와 관계 원만한 편으로 평소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옴.
- 9살의 나이 차이로 부모 이혼 무렵 성인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삶의 큰 변화 느끼지 못하고 독립하여 생활함.

여동생(5세)

- 이복형제
- 부모와 함께 면회 오는 등 유아기부터 자주 교류하여 환자를 잘 따르고 좋아함.

<경제적 상황>

- 의료보장: 건강보험
- 저축액: 有
- 사보험: 실비(+/면책기간 아님)
- 주거형태: 아파트(전세)
- 입원비 및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수령금, 부친 부담 예정.

<임종 돌봄>

- 수세의복(+), 영정사진(+)
- 장례식장: 거주지 관내(명단 제공)
- 장지: 유골 스톤 주얼리 제작(가족 소장용) 및 거주지 관내 납골당 안치 예정

<문제 사정>

- 내재된 정서 표현 어려움: 입원 초기 수차례 '상담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상담실 내방함. 자신이 살아온 삶을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도 본질적 심리 표현은 회피하는 등 정서 표출 욕구는 있으나 방어기제 가짐.
- 아버지에 대한 인정과 애정 욕구: 상담 시 수차례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과 고마운 마음 표현함. 또한 대화 중 주제에서 벗어나 별안간 부친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 자주 관찰됨. 어린 시절 부모 갈등과 이혼으로 모친 슬하에

서 성장한 환자에게 동성의 부친으로부터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일평생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됨.

- '버스킹 가수'가 되고 싶었던 장래 희망: 청소년기 노래에 관심을 갖고 기타를 배우며 여러 번 오디션 지원함. 입원 후 '호스피스 병동에도 기타가 있나요? 노래 부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 관찰됨.
- 말기 암 자녀에게 갖는 보호자(어머니)의 죄책감: 상담 시 '살면서 아이(환자)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많이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아픈 자녀에게 갖는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표현함.

<개입 및 결과>

- 돌봄 요법 연계 통한 정서 표현 원조: 매체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감정 표현 원조하여 심리적 방어기제 우회 및 환자의 정서 표현 욕구를 충족함.
- 아버지 면회 및 남성 자원봉사자의 정서 지지: 주 1회 이상 부친과 면회와 외출 시행하여 부자간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원조하였으며, 이 외 부친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자원봉사자 배정하여 정서적 돌봄으로 인정과 애정의 욕구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병동 내 버스킹 공연을 통한 성취감 경험: '작은 음악회' 개최하여 평소 좋아하던 곡을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시간 가짐. 호스피스 팀원과 병동 내 타 환자 및 보호자의 호응과 격려로 성취감과 효능감 경험할 수 있도록 원조함.
- 지속적인 보호자(어머니) 상담을 통한 정서 지지: 주 1회 이상 상담으로 정서 돌봄 시행하였으며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에서 나아가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인생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원조함.

원목자 부분

<환자의 종교적 배경>

이○○는 중학교 시절 교회에 다녔을 때 친구들과 좋은 기억들이 있었지만 아프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혼자만 이렇게 아픈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관심으로 잘해주셔서 예전에 교회에 갔을 때 행복했던 감정이 떠올랐고, 병원에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기도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싶다고 적극 표현 했다.

원목자는 환자의 의견을 신부님과 간호사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님과 의논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교리와 세례를 준비하게 되었다. 환자의 엄마(보호자)도 아들과 세례받기를 원하였다.

<영적 돌봄>

○○는 처음 만난 원목자에게 한마디 건넸다. “기도 해주러 왔어요?” 하며 전혀 어색함

없이 맞이해주었다. 기도하고 기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환자에게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라고 물으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였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던 ○○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으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면서 많은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다.

원목자는 병실을 방문하여 조금씩 짧은 시간이지만 주요 교리를 중심으로 두 달 동안 환자와 보호자에게 세례를 준비시켰다.

영성체 방법, 세례식 준비 등을 연습시키며 “이제 믿는 마음으로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 손 꼭 잡으세요~”라며 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하느님의 자녀 마르첼리노(환자), 마리아(엄마)로 세례를 받았다. 눈물을 흘리며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글로 남겼다.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법 치료사 부분

※ 입원 후 요법 총 26회 개입(미술 8회기, 음악 8회기, 원예 10회기)

<음악요법>

- 주제: 일상 느끼기

- 목표: 정서적 편안함, 라포 형성

치료사가 인사하며 다가가자 대신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음료수 준비하며 반가움 표시함. 음악인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자신에게 음악 치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음악인으로서 음악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언급함. 평소 기타 치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가수를 꿈꾸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고 함. 치료사가 한 곡 선물한 뒤 환자가 직접 노래 및 연주하는 시간 가져봄. 적극적으로 노래 및 악기 연주하고 후에 미소 보이며 긍정적 느낌 언급함. 환자 ‘뜨거운 안녕’ 영화를 본 뒤 자신도 호스피스에서 밴드를 해보고 싶다는 바람 내비침. 목소리가 점점 안 좋아져 걱정은 되지만 자신은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싶다고 이야기함. 다음 시간 치료사와 함께 어쿠

스틱 밴드를 결성해 노래해 보기로 기약함. 한편, 보호자(어머니)는 환자가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 영상을 녹화하고 얼마 만에 들어보는 노래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미소 보임.

<미술요법>

- 주제: 만다라

- 목표: 내면 탐색 및 자기에게 몰입하는 경험

치료사에게 반갑게 인사한 환자는 퇴원했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쉬웠던 마음을 토로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나눔. 치료사는 만다라의 의미와 미술매체에 대해 소개하고 환자와 보호자(어머니)

는 개별 작업으로 각자 다른 만다라 도안을 선택하여 작업에 들어감. 보호자는 빠른 속도로 색을 채워나갔고, 환자는 속도는 더디지만,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며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완성함.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며 두 작품에서 중심을 진한 색으로 강하게 표현된 공통점을 발견하였고 내면의 힘이 있음을 명료화 시키며 모자 간 연대를 경험할 수 있었음. 환자는 작품의 제목을 '나가를 타나 봐'라고 지었고, 보호자는 잡념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함. 이는 몰입을 통한 자기에게 집중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사료됨.

자원봉사자 부분

스물셋, 환자는 첫 손주와 나이가 같다. 가족보다는 친구가 좋고 밥보다는 고기가 좋은 그 철없는 나이에 대장암이라는 큰 병에 걸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마음이 아프다 못해 사무쳤다.

첫 만남에 머리를 감겨주니 좋아하며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라 묻는다. '봉사자 선생님'이 맞지만 딱딱해 보이고 손주뻘이지만 '할머니'는 조금 그래서 '이모'는 어떠냐고 했더니 냉큼 '이모, 머리 감겨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한다. 그 말에 눈물이 고이고 코끝이 시큰해서 답도 못하고 푸른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두 번째 만남에 다리를 마사지해주었다. 기분이 좋은 듯 어린 시절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를 재잘거리면서 말하는 것이 타고난 입담꾼이다. 한참을 신나게 이야기하더니 '엄마 잘 부탁드려요. 호스피스 병동 오고 나서 자꾸 울어요.'라고 특하니 마무리를 짓는다. 말은 하면서도 눈은 연신 눈물을 흘려내던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다.

세 번째 만남에 환자는 자고 있어 모처럼 보호자와 대화할 시간을 가졌다. 이들과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아 슬프지만, 호스피스 병동 오고 나서

평생 받을 사랑을 다 받고 가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한다. 보호자도 딸과 나이가 같아 한참을 안고 다독거렸다.

가을바람이 선선했던 어느 날, 환자와 보호자는 나란히 세례를 받았다. 모자의 이전 종교가 개신교이기에 담임 교회 전도사님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었다. 점점 수척해지고 아파하는 시간이 늘었는데도 힘을 내어 세례를 받는 모습이 감사하고 또 고마웠다.

환자와 보호자의 평안을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많은 것들을 깨닫는다. 힘든 투병을 버티내는 강건함과 그것을 옆에서 돌보는 온유함은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이었다.

매주 수요일, 병동 입구로 들어서서는 마음이 잘게 떨린다. 환자의 상태는 어떤지, 보호자는 괜찮은지. '힘들어하지만 잘 견디고 있어요.'라는 답에 긴장이 혹 풀리며 안도감이 퍼진다. 아마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당분간은 이러한 마음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돌볼 것이라 다짐해 본다.